



염기준 작
'P-Island'

로터스갤러리 신인 릴레이 기획전

15일까지 염기준 전시회

무각사(주식 장학 스님) 로터스 갤러리가 8월24일까지 '제2회 신인작가 릴레이 기획전'을 연다.

올해는 무각사 신진작가 공모에서 염기준(30·회화), 이세현(30·사진·16~29일), 김경란(여·29·설치미술·7월1~7월13일), 러은(여·34·회화·7월14~27일), 노여운(27·회화·7월28일~8월10일), 이조흠(30·회화 및 영상·8월11일~8월24일)씨가 선정됐다.

무각사는 지역 신진 작가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35세 이하의 작가들을 선정, 전시회를 열고 있다.

첫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염기준씨의 작품으로 꾸며진다. 염씨는 현대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낸 소비와 욕망의 시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바닷속에 잠겨 있는 섬 풍경을 그린다. 작업의 모티프는 과거 남태평양의 보석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나라 투발루(True Value)다.

염씨의 강렬하고 감각적인 색채와 사실적 묘사는 순수와 파괴 사이의 갈등을 더욱 직설적이고 대조적으로 드러내며, 인류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의 062-383-010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제4기 역사문화시대대학' 개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2일부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과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대표 김병기)는 오는 12일부터 7월3일까지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동구 삼호센터 1층)에서 '전라도 여행문화의 역사적 흔적을 찾아서'를 주제로 강좌와 문화탐방을 병행하는 '제4기 역사문화시대대학'을 개최한다.

강좌는 ▲제1강(6월 12일) '한국인의 걷기 본능-여행의 과거, 현재, 미래'(신정일 우리땅 걷기 이사장) ▲제2강(6월 19일) '여행과 인문학과의 만남'(이종범 조선대 교수) ▲제3강(6월 26일) '유산기를 통해 본 옛 선인들의 감성 여행'(박원식 월간 사람과 산 편집위원) ▲제4강(7월 3일) '키워드로 풀아가는 전라도 여행' 등으로 진행된다.

7월5일에는 슬로시티 신안 증도로 문화탐방을 떠난다. 생태염생식물원, 신안갯벌센터, 슬로시티센터, 천년해송 숲, 짙뽕어다리 등을 둘러보게 된다.

수강 모집 인원은 선착순 40명으로 희망자는 오는 10일까지 전화, 문자, 팩스 등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문화탐방비 별도)다. 문의 062-234-2727, 010-6607-091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계 발레의 별, 빛고을 흥린다

월드발레 스타즈 공연 7일 문예회관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등 수석 무용수들 출연

'백조의 호수'·'카르멘' 등 하이라이트 공연



발레 '백조의 호수'에 등장하는 흑조의 32바퀴 연속 회전, '돈 키호테' 중 키티리와 바질의 결혼식 장면에서 만날 수 있는 키티리의 32바퀴 회전과 바질의 화려한 점프, '해적'의 다이내믹한 춤사위..

이렇게도 지역에서는 유명 발레단의 공연을 감상할 기회가 거의 없다. 특히 외국 무용수들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은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

전막(全幕)공연이 아닌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세계 유명 발레리나들이 선사하는 클래식 발레 하이라이트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2014월드발레 스타즈 공연이 7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한국 발레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보스턴발레단,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우크라이나 국립발레단 등 유명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들이 참여하는 무대다.

공연 프로그램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 매력적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백조의 호수', 화려한 테크닉이 돋보이는 '돈 키호테'와 '라 바야데르', '해적', 고전발레의 대표 작품으로 꼽히는 '로미오와 줄리엣', 낭만 발레 '라 실피드', '다이아나와 악테온', '지젤', '카르멘', '코렐리아' 등이다. 또 발레계의 새로운 흐름을 알 수 있는 모던 발레 작품도 선보인다.

무대에서 2인무를 선보이는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는 발레의 다양한 테크닉과 예술적 표현을 모두 아우르는 수석무용수들이다.

출연진은 안나 치간코바, 파울로 아리아스(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알리아 따니코파에바(헝가리 국립발레단), 안드레이 피사레프(우크라이나 국립발레단), 사야카타쿠 다(모스크바 국립발레단), 올라 구드코·아이도스 자칸(보스턴 발레단), 제시카 오베르턴, 제임스 프레이저(오하네스버그 발레단), 이은원·이영철(국립발레단) 등이다.

6일과 8일에는 전공자를 대상으로 국제발레워크숍도 갖는다. 안드레이 피사레프, 아이도스 자칸, 알리아따니코 파에바(룩셈부르크 콩쿠르 금상), 올라 구드코바 등이 참여한다.

티켓 가격 11만원~5만5000원. 문의 062-523-03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왼쪽부터 박재연, 이후성, 이종만씨.

한 마음으로

박재연·이종만·이후성씨

앙상블 '우노 아니모' 결성

10일 금호아트홀 첫 연주회

클래식 연주자들이 꿈꾸는 것 중 하나가 음악적 코드가 맞고 이들과 앙상블을 함께하는 거다. 하지만 음악적 견해와 인간적인 매력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멤버를 만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피아니스트 박재연(39·조선대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34·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 첼리스트 이후성(33·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차석)씨가 앙상블 '우노 아니모(Uno Animo)'를 결성했다. '우노 아니모'는 '한 마음으로'라는 뜻이다.

이종만씨와 이후성씨는 시장 단원으로 친분이 두텁고, 박씨 역시 지난해 이후성씨와 트리오 공연을, 올해 이종만씨와 독주회를 하며 호흡을 맞추고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앙상블이 만들어졌다.

세 사람은 '트리오' 대신 '앙상블'을 택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트리오가 주축이 되기는 하지만 매년 새로운 연주자와 함께 새로운 음악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번 공연에는 비올리스트 정수지씨가 함께 참여했다.

1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첫 번째 연주회는 각 작곡가의 첫 번째 곡들로 꾸렸다. 연주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4중주 1번 G단조', 피아졸라의 '피아노 트리오 부에노스아이레스' 중 '봄',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등이다.

박씨는 선화예술고교와 서울대를 거쳐 텍사스 오스틴 대학 석사학위를 마친 후 지난 2010년부터 조선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런던 퍼셀음악학교와 런던 왕립음대, 독일 룩셈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이종만씨는 에라토 앙상블 멤버로도 활동중이며 이후성씨는 조선대와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거쳐 현재 조선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박재연씨는 "실내악 그룹을 하고 싶다는 꿈은 있었지만 한 번 그룹을 결성하면 깨지지 않고 오래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쉽게 결성하기 힘들었다"며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마음 맞는 연주자들과 함께 현대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고 싶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10-5606-50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SINCE 1990

이태리 가구 전문점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런칭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1899-0240